

야구

4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위클리 프리뷰

거침 없는 호랑이 군단 독수리 잡고 순위 역전?

2경기차 KIA-한화 3연전 자존심 승부

영·호남 라이벌 두 팀의 동반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른다. 이들의 상승세는 일시적인 흐름일까, 아니면 반격의 서막일까.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이번 주중·주말 6연전에 돌입한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주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5승1패를 기록했다. 끝내기 승리만 무려 세 번을 거두면서 안방에서 절정의 팀 분위기를 만들었다. 불펜투수들을 연일 쏟아 붓는 혈전이었지만, 승리라는 값진 열매를 따내면서 기분 좋은 휴식일을 보냈다.

문제는 다가오는 상대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우선 힘겨운 잠실 원정을 소화해야 한다. 최근 수년 간 절대 열세를 보인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3연속 위닝시리즈에 도전한다. 이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롯데 자이언츠와 주말 3연전을 벌인다.

KIA 타이거즈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박흥식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거칠 것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베테랑들의 부활과 젊은 선수들의 활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팀의 비상을 이끄는 중이다. 여기에 5월의 '에이스' 모드를 다시 가동시킨 양현종이 팀 상승세에 정점을 찍고 있다. 승률 4할 대도 오랜만에 다시 기록하게 됐다.

KIA는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주중 3연전 대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최근 상승세에 힘입어 6위 한화와의 격차는 불과 두 경기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릴 시에는 순위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후에는 다시 광주로 돌아가 키움 히어로즈를 불러들여 주말 3연전을 벌인다.

상승세를 탄 두 팀 외에도 흥미로운 매치업이 예정돼 있다. 기세가 한풀 꺾인 KT 위즈가 1위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재도약을 노린다. 롯데는 NC 다이노스와 경남 라이벌 매치를 가진다. LG 트윈스와 키움은 고척돔에서 운명의 중위권 판도 싸움을 벌인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매너가 얹혀 가는 그날까지!
할머니가 하이킥 치는 그날까지!

격투기 예능의 끝판왕

이종TV

이종TV 유튜브채널 개국

야구기자들의 뒷담화 'W베이스볼' | 롯데는 15년 만에 꼴찌로 추락할까?



롯데 자이언츠가 좀처럼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패가 길어지면서 양상문 감독(왼쪽)도 좌절안식이다. 통 큰 투자를 감행했지만, 팀의 기동이 되는 투수와 포수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부족해 방향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다.

“돈은 돈대로 써놓고” “이지영 안잡고 뭐했나”

(키움 포수)

스포츠동아 야구팀은 매주 월요일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KBO리그의 여러 소식과 뒷이야기, 다양한 전망까지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대화입니다. 매주 월요일 회의실 현장을 날 것 그대로 야구팬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27일 야구팀 회의·참석자 : 이경호 차장, 정재우 전문기자, 강산, 장은성, 서다영, 최익래 기자

팀 연봉 1위...방향 없는 부실 투자 강민호와 린드블럼을 놓친 건 최악 빈약한 투수진, 노경은 있었더라면 무엇보다 최악체 포수 보강 최우선 원 나우 집착하다 모두 잃을까 걱정

-이경호(이하 이): “롯데 자이언츠의 추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위기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실 롯데는 2017년 이대호와 4년 총액 150억 원에 계약하면서 우승을 향한 강한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이후에도 프리에이전트(FA) 계약 등 투자가 계속 이뤄졌지만 가면 갈수록 우승권과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정재우(이하 정): “좀 큰 틀에서 접근하자면, 구단의 방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겠지만, '부실 재건축'에 가까워요. 돈은 돈대로 썼는데, 막상 깊이 살펴보니 여기저기 하자가 많은 상태죠.”

●원 나우 버튼 눌렀지만 전력은 리빌딩 상황 -최익래(이하 최): “같은 생각입니다. 계획과 현실의 괴리가 큼니다. 롯데는 이대호와 손아섭, 민병현 등 FA에 거액을 투자한 상황입니다. 팀 연봉도 10개 구단 중 1위이고요. 하지만 포수와 마운드 상황을 살펴보면 리빌딩 시즌이죠. 예산은 '원 나우' 팀만큼 쓰지만 현실적 전력은 '리빌딩' 팀인 아이러니가 결국 롯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호와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인데... 현 상태에서 우승은 커녕 첫

해인 2017년이 유일한 PS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원 나우와 리빌딩의 간극, 정확한 지적입니다. 팀 연봉 1위 팀이면 당연히 '원 나우' 버튼을 계속 눌러야 하는 상황인데, 전력은 빈틈이 많아 리빌딩을 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 상태라면 올해 뿐 아니라 팀의 미래도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왔을까요?.”

-서다영(이하 서): “FA 시장에 거액을 투자하는 동시에 내부 육성을 함께 노렸다고 하지만 포수 강민호처럼 꼭 잡아야 할 선수를 놓쳤다는 문제점을 꼽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정: “FA 투자를 통해 우승에 도전하려면 내부전력도 그에 걸맞은 수준이어야 하는데, 롯데는 그렇지 못했어.”

-최: “결국 FA가 아니면 빈 자리를 해결하지 못했었던 게 최근 롯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 “여러 전력 구성 중 린드블럼을 놓친 부분이야말로 그 와중에 대표적인 패착이었죠.”

-이: “2017시즌 뒤 린드블럼과 결별은 최악의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롯데에 있었던 다른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을 텐데요. 선발 투수 이야기가 나온 만큼 짚고 넘어가야 할 이름이 있죠, 노경은.”

-장은성(이하 장): “노경은이 있었으면 선발 로테이션에 어떤 역할이라도 했을 텐데... 정말 작은 차이로 완전 결별했네요.”

-정: “투수력이 취약한 롯데가 감독까지 투수 전문가로 교체하면서 노경은을 놓쳤. 어딘가 앞뒤가 안 맞죠?”

-이: “협상결렬 과정을 보면 양측 모두 감정적인 결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부 FA와 대책 없이 결별해 버리는 것은 감독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산(이하 강): “S급 투수로 분류하긴 어렵지만, 롯데 선발 사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쉽게 협상포기를 해선 안 됐다고 봅니다.”

-최: “최근 노경은과 통화를 했는데, 시즌 때 루틴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5일 간격으로 투구하고, 그 사이 불펜 피칭하는 식으로요. 최고구속도 140km 중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강: “협상 포기라고 공표하지 않았으면 언젠대 모양새 좋게 다시 데려올 수가 있었

는데, 이미 말을 뱉어버렸으니 이제 와서 데려오면 실패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쉬운 상황입니다”

●문제의식 없이 수용된 프런트 야구

-정: “롯데 프런트의 문제는 지난 10년간 KBO리그에 메이저리그식 프런트 야구가 커다란 문제의식 없이 수용된 결과로도 볼 수 있어요. 프런트 야구를 하려면 프런트의 전문성도 담보돼야 하는데, 롯데 수뇌부는 과연 전문가적 야구 식견을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최: “둘 지구를 날려주셨습니다. 하하.”

-이: “구단은 아프겠지만 정확한 지적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한국식으로 잘 변형된 프런트 야구, 키움 히어로즈는 강력한 오너십 속에 프런트의 역량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 프런트는 아무런 색깔이 느껴지지 않네요. 그런데, 롯데 자이언츠 대표이사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뀐다?”

-정: “그러게요, 굉장히 자주 교체되고 있네요.”

-강: “2013년부터 대표이사만 4명이네요. 최하진 대표부터 이창원, 김창락 대표를 거쳐 현재 김종인 대표까지.”

-서: “이러니 기본적인 구단의 방향성 자체를 지키기도 어렵겠네요.”

-정: “메이저리그식 프런트 야구의 특징 중 하나로는 '데이터 야구'를 꼽을 수 있는데, 그에 입각하자면 중박투자도 있을 수 없지요. 롯데는 '원 나우'에만 집착하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강: “포인트를 확실히 안 잡고 투자한 느낌이에요 포수도 경험 많은 베테랑이 한 명은 있어줘야 그걸 보면서 크는 후배들이 나올 텐데요.”

●만약 이지영 트레이드에 성공했다면...

-정: “지난 겨울 키움의 삼각트레이드 통해 이지영을 보강했을 때, 다들 롯데는 뭐했나 하지 않았나요?”

-이: “지난해 이지영을 놓고 롯데와 삼성 라이온즈가 협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결국 불발 됐는데 롯데 입장에서 보면 팀 전력을 바꿀 수 있었던 트레이드였습니다.”

-강: “그렇죠. 지금 이지영 얼마나 잘하나요.”

-최: “타 팀 백업 포수들 중에서도 롯데에서 주전 꿰찰 선수들이 여럿 보이는데요.”

-이: “지금이라도 트레이드를 서둘러야 합니다. 전력을 구축해야 감독도 될 하죠. 현장만 육박고 있어요.”

-정: “포수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팀들도 있는데, 롯데는 포수를 제외한 다른 부문에만 집중한 결과죠.”

-장: “이지영 올 시즌 끝나면 FA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지영을 트레이드로 잡을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 과감해야 합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투수 전문가 감독 장점에 살리지 못하고 있고, 그럼 과연 추락하는 롯데에 날개는 없는 걸까요? 마지막 꼴찌가 언제입니까?”

-최: “정규시즌을 최하위로 마친 건 2004년 이 마지막이죠.”

-정: “그 해가 양상문 감독 롯데 사령탑 데뷔 시즌입니다.”

-최: “맞습니다. 양상문 롯데 1기 때 2년간 성적은 8위, 5위였죠.”

-장: “그 때도 첫 해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즌 때 젊은 선수들을 키우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지금이라도 결단 내려야

-이: “앞으로 롯데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빠른 진단과 해법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 “포수와 마운드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움직여야 반등도 가능합니다.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정: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 “롯데에게 남은 건 올해 91경기가 아닙니까. 내년, 내후년, 더 큰 미래를 위해 서라도 명확한 방향 설정이 지금이라도 절실합니다.”

-서: “롯데가 가고 싶은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장: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포수 트레이드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행하는게 필요해요. 안 한다면, 내년 FA 외부 영입 추진을 추진해야하고요. 투수 레일리와는 오랜 동행을 올해 이후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올해 롯데를 보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 더 깊이 있는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야구팀